고규홍의 '나무 생각'

가장 한국적인 꽃이 선물하는 '봄의 환희'

봄의 기미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건 나무다. 나무는 봄의 속도를 알려 주는 또렷한 지표다. 기상청은 지역별로 정한 관측 표준목의 가지에서 세 송이의 꽃이 피어나는 걸 개화 기준으로 삼고 해마다 봄꽃 개화 시기 예상도를 발표한다.

기상청이 봄꽃 개화 예상 시기 발표를 민간업체에 넘긴 올해에는 기관마다 독자적으로 개화 시기를 예상해 발표했다. 업체마다 지정한 표준목이 달라서 차이가 있지만 그래 봐야 하루 이틀 사이다. 우리 지역 광주를 기준으로 하면 개나리 개화를 한 업체에서는 엊그제인 3월16일, 다른 업체에서는 내일 모레인 3월20일이라 했다. 어찌 됐든 이번 주에는 개나리가 피어난다는 이야기다. 시나브로 봄이 다가왔다.

개나리는 우리의 대표적인 봄꽃이다. 개나리의 식물학명은 포시티아 코리아나(Forsythia koreana). 식물학명에 우리나라가 원산지임이 표시된(코리아나) 몇 안 되는 식물이다.

우리 토종 식물 가운데에는 일본이 원산지인 것처럼 식물학명에 자포니카(japonica)로 표기된 식물이 많다. 우리 식물에 학명을 처음 붙인 사람이 일제 강점기 때의 분류학자 나카이 다케노신(1882-1952)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한반도의 모든 식물을 꼼꼼히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면서, 우리 토종 식물의 학명을 붙이고 학계에 등록했다. 그때 우리 땅을 일본의 부속 지역으로 생각했던 그는 학명에 자포니카라고 표기했다. 역사의식이 모자란 일본인 학자의 하릴없는 처사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코리아나'라는 표기를 붙여 우리 토종 나무임을 분명히 한 나무가 개나리다. 그의 눈에도 개나리는 한국 땅에서 한국인들의 정서에 가장 '알맞춤하게' 오래도록 살아온 가장 한국적인 식물이었다. 개나리야말로 자타가 공인할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 고유의 나무이고, 우리 문화의 상징이라 할 만한 식물이다.

물푸레나무과에 속하는 개나리는 일본과 중국에서 자라는 종류를 포함해 모두 여덟 종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나리 외에 산개나리, 만리화, 장수만리화 등 네 가지가 자라는데, 그 가운데 개나리꽃의 노란색이 가장 선명하고 화려하다.

개나리꽃에는 흥미로운 사실이 담겨 있다. 얼핏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개나리꽃에는 암꽃과 수꽃이 따로 있다. 식물학에서는 암술이 발달한 암꽃을 장주화(長柱花)라고 하고, 암술이 퇴화하고 수술이 발달한 수꽃을 단주화(短柱花)라고 한다. 그런데 그 많은 개나리에서는 장주화인 암꽃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암꽃은 수술의 꽃가루를 받아들여 씨앗을 맺어 자손을 퍼뜨리는 식물의 가장 본능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암꽃이 없다면 자손 번식이라는 생명의 본능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개나리는 번식 본능을 포기한 게 아니다. 오히려 이 땅의 어느 나무보다 더 많은 자손과 더 넓은 생존 영역을 가진다. 이는 개나리를 좋아했던 우리 조상들이 많이 심고 키워 왔기 때문이다. 개나리는 생애를 통틀어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번식 활동에 손수 나서지 않고 사람의 힘을 빌렸다. 수분과 번식이라는 힘겨운 과정을 거치지 않는 대신 사람을 고용한 셈이다. 개나리에 고용된 사람은 흔쾌히 긴 세월 동안 무임금 노동을 해 왔다. 물론 돈으로 계산되는 임금은 한 푼도 못 받았지만, 사람들은 긴 겨울을 이겨낸 봄의 환희를 만끽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 유일한 보상이었으며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보상이었다.

최근 나무를 부정한 돈벌이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파렴치한 실태가 날마다 뉴스에 오르내린다. 이 사람들은 1제곱미터의 좁은 공간에 무려 16그루의 나무를 심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나무를 심었다. 오로지 나무를 돈으로만 계산했다. 토지를 보상받게 될 장래에 나무를 죽여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잔인무도한 행위다.

세상의 모든 나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상을 가져다주는 생명체다. 나무는 말없이 우리 곁에서 평화와 환희를 가져다주는 고마운 생명체이다. 언제나 돈을 우선시하는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쓸쓸히 피어나는 개나리꽃 한 송이가 더 간절하게 기다려지는 봄이다.

〈나무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인터넷 의료 정보는 약인가 독인가

이상호
조선대치과병원 소아치과 교수

요즈음 우리 사회의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공급자인 의사 중심에서 수요자인 환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다시 말해 환자들의 건강과 의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환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중에서도 특히 알 권리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각 병의원들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통해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사람들은 다양한 검색 프로그램이나 각종 SNS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공유함으로써 건강과 의료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요즈음 환자들은 병의원 방문을 통하여 알지 못했거나 의심스러웠던 내용들을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보고, 의사와 면담 중 질문을 하거나 웹사이트에서 얻은 정보를 근거로 치료나 약물 처방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인터넷 의료 정보는 환자-의사 사이에 의사소통을 부드럽게하는 윤활유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칫 잘못된 정보를 입수하거나 인터넷 정보를 너무 신봉하면 의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함은 물론 환자-의사 간 대화를 단절시킬 수 있다. 과유불급이란 옛말도 있듯이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상대적으로 그릇된 정보도 많아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정보회사에서 건강 관련 웹사이트를 평가한 결과 의료인이나 학술단체 등 전문 집단의 검증을 거친 사이트는 4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전체 정보의 약 25%가 그릇된 정보로 평가됐다. 특히 약물이나 치료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근거 중심의 정보가 다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유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실제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할 때 교과서에 있는 근거 중심의 원칙을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저는 소아 치과 전문의로서, 예를 들어 어린이의 충치를 치료할 때 먼저 문진을 하고 임상검사와 방사선 사진촬영을 통해 충치가 있는 치아의 상태를 파악한 후 치료법을 선택하는데, 이때 충전을 할 것인가 크라운을 씌어줄 것인가?, 신경 치료를 할 것인가 발치할 것인가? 아니면 임시 처치만 시행해 줄 것인가? 등을 고민하게 된다. 이때 단순히 교과서의 원칙만 따라 치료법을 결정한다면 의사는 고민없이 행복한 진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교과서적 기본 원칙 이외에 어린이가 이 치아를 앞으로 얼마나 더 쓸 것인가? 치료할 때 협조도는 어느 정도일까? 치료 후 칫솔질 등 구강 청결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치과를 방문할 수 있는 환자와 보호자의 시간적 여유가 어느 정도일까? 심지어는 진료비까지 고려해 치료 방법을 선택한다면 의사는 물론 환자나 보호자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치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웹사이트에서는 의사들의 이런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고민까지는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환자와 의사가 직접 대면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성공적인 치료를 위한 출발점이다.

국내 한 연구에서 인터넷 건강 정보는 환자들에게는 진료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여 자신감을 주고 더 적극적으로 진료에 임하는 등 긍정정인 인식이 높은 반면, 의사들에게는 불필요하고 부정확한 정보, 소위 요즈음 유행하는 말로 '가짜 뉴스'에 의해 환자-의사간의 신뢰가 약화되고 불필요한 대화를 해야 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다고 했다. 즉 인터넷 건강 정보에 대해 환자, 의사 두 집단간 인식의 차이가 분명 있으며 이는 곧 상호 신뢰 문제로 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인터넷 건강 정보는 잘 쓰면 소통에 도움이 되지만 잘못 쓰면 불통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의 작가이자 사회사업가인 헬렌 켈러는 시각 청각 중복 장애자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다. 그녀가 말했다. 시각장애는 나를 사물로부터 분리시켰지만 청각장애는 나를 사람들로부터 분리시켰다. 의사소통이 우리의 삶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환자-의사의 관계 역시 이런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인터넷 의료 정보,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될 수도 있다. 너무도 평범한 진리이다.

기 고

네 죄를 네가 알렷다!

박래호
사단법인 장성춘추회 회장

유학자(儒學者)이자 제33대 성균관 고문이며 장성군 필암서원(筆巖書院)에서 오랜 기간 강의를 해 온 노강(蘆江) 박래호(朴來鎬·79) 선생께서 광주일보에 가유문(呵諭文: 꾸지람하며 타일러 깨우쳐 주는 글)을 보내 왔다. '일본군 위안부들이 자발적인 매춘부였다'는 망언을 자신의 논문에 실어 전 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는 미국 하버드대학의 램지어 교수를 크게 꾸짖는 글이다. 본사는 필자의 감정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 거친 표현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살려 싣는다. 〈편집자 주〉

나는 곰곰 생각해 보았다. 하늘이 열리고 지구가 열리며 사람은 공간에서 태어났으니, 사람들의 성품은 본래 착한 것이다. 한데 그 기질은 똑같지 않아 그 마음씀씀이 간혹 착하기도 하고 간혹 포악하기도 하여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으며, 지역도 동서남북의 차이가 없이 끊이지 않고 배출되었으니 이것은 무슨 이치일까.

대체적으로 인간이란 그 기질이 같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그 심술이 비록 포악의 함정에 깊이 빠져들었다 해도,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글을 배우면 능히 착한 마음으로 옮겨가고, 과오가 올바르게 고쳐진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맹자께서도 인간의 성품은 본래 착한 것이라고 설명하셨지 않은가.

최근에 들으니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의 램지어 교수라는 놈이 망령되이 저술한 논문에 언급하기를, 을사보호조약 이후 한국 여인들이 스스로 일본에 들어가 자기들의 몸을 팔았으며, 사실상 일본 정부가 강제로 끌고 가 일본군의 위안부로 삼은 것이 아니라고 기술하였다 한다.

이 무슨 미치광이의 망령인 것인가. 아, 왜놈 정부가 혹은 강제로 혹은 꼬임으로 우리나라 여인들을 끌고 가서 군대 위안부로 삼은 악행은 하늘과 땅과 사람과 귀신까지 모두 아는 사실 아닌가.

그럼에도 너는 왜놈들에게 뇌물을 받아먹고 망령되이 미친 듯 붓을 놀려 이처럼 역사의 죄인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구나. 그러니 램지어, 네놈은 진실로 인간의 종자인가 짐승의 무리인가? 네놈은 본래 서양 오랑캐의 종자로 왜구의 나라에서 공부하며 그들로부터 뇌물이나 다름없는 은혜를 입었다 하여, 자기 양심마저 내팽개쳐 버리고 왜정의 잘못을 미화하여 올바른 것으로 바꿔 놓았구나. 애써 익힌 법학이 마술(魔術)로 변하고 말았구나.

램지어! 네놈이 조작한 죄상은 네가 진실로 먼저 알 것이다. 네가 진실로 짐승의 무리가 아니라면 이제라도 어제의 잘못을 깨닫고 하늘과 인류에게 빌어 용서를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선비들의 붓이 너의 과오를 춘추대의(春秋大義: 대의명분을 밝혀 세우는 큰 의리) 앞에 크게 밝힐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류가 함께 노여워하는 것은 물론 귀신들도 앞 다투어 너를 죽이려 할 것이다.

램지어! 네놈은 나의 엄중한 꾸지람을 듣는 즉시 주저하지 말고 잘못을 고쳐 너의 양심을 되찾는 것이 좋을 것이고 마땅할 것이다. 다시 한마디 말을 보태건대, 오늘 우리 선비들의 정의로운 꾸지람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이며, 너의 법학이라는 얄팍한 지식을 마술(魔術)의 깊은 함정에서 구해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 너의 모든 망령된 논문을 모조리 거두어 당장 불살라야 할진저!

社 說

허술한 '탁상 안전 점검'이 산업재해 부른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2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의 안전점검 시스템으로는 헛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감독 인력이 부족한 탓에 산업 안전에 대한 점검을 현장이 아니라 회사 측이 제출하는 서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하에는 산업현장의 안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재해 조사 등을 담당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이 광주청 27명, 여수지청 8명, 목포지청 6명 등 모두 41명이 있다. 하지만 이들 감독관이 담당하는 사업장은 광주 6만 곳, 전남 6만 7000곳 등 12만 7000곳에 달한다. 한 명당 평균 3100곳이 넘는 셈이다.

이처럼 담당 사업장이 많고 업무량이 과중하다 보니 지난 2018년 광주지방노동청에서는 한 감독관이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도 있었다. 특히 감독관이 직접 산업현장을 돌며 사고의 위험성을 살피고 감독을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여서 사업자 측이 제공하는 서류와 보고서만으로 현장의 안전을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안전점검이 허술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산업현장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나 광주글로벌모터스 등 산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업체에서는 사후 현장 근로감독 때마다 수십~수백 건씩 위법 사항이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안전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처럼 현장이 아닌 탁상에서, 예방 위주가 아니라 사고 발생 후 '사후약방문식'으로 이뤄지는 한 산재 사고는 막을 수 없다. 올 들어서만 광주·전남에서 안전사고로 일곱 명이나 희생된 것이 이를 말해 준다. 게다가 내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다. 그런 만큼 정부는 산업안전 감독관 정원을 과감히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촘촘한 산재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섬 지역 노인 백신 접종' 편의 대책 마련해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20일이 지났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17일 0시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 누적 접종자는 광주 2만5983명 전남 3만1712명 등 우선 접종대상자의 78%인 62만1734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백신 접종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1차 대응요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코로나 치료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백신을 맞게 되는 섬 지역 노인들의 불편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하는 화이자 백신은 보관·운반 등이 까다로워 육지에 설치된 코로나예방접종 센터에서만 접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65~74세 고령자용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또한 다르지 않다. 섬 지역 보건지소에서 접종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접종을 위해서는 부득이 보건소가 있는 육지까지 나와야만 한다.

이 때문에 만약 흑산도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이 백신 접종을 하려면 쾌속선을 타고 두 시간 걸리는 목포까지 가야 한다. 백신 접종을 마친 후에도 이상 반응 여부를 살피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곧장 귀가하지 못하고 목포에서 하루를 묵을 수밖에 없다. 1박2일의 '백신 접종 고행길'이다. 전남의 섬 지역 75세 이상 고령자는 9091명, 65~74세 고령자는 7797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섬 지역 노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과 지침에 전남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 일단 보관·운반이 까다로운 화이자백신 대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 기관에 섬 지역 보건지소를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無等鼓

실패한 인사

사람을 쓰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일의 성공과 실패는 사람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달려 있지만 이를 제대로 잘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사적 관계나 호불호 등 다양한 이유로, 능력도 없는 어설픈 사람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도 한다.

잘못된 인사 기준이 관례가 되면 능력도 없는 사람이 높은 의자에 앉는 것이 당연시된다. 이것이 최악의 인사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기업·단체 등 조직에 심대한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두머리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역할과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진시황의 천하통일은 앞서 진(秦) 효공(孝公)이 그 밑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전국시대 진나라의 25대 군주였던 그는 온 힘을 다해 치국에 힘썼고, 주변 제후들을 마음속 깊이 승복시켰다. 이에 앞서 그는 영을 내려 인재를 열심히 찾았다. 그 결과 경쟁국의 인재인 상앙을 중용하기도 했다. 상앙은 두 차례의 변법(變法: 법을 고침)을 통해 순식간에 진나라를 강대국의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물론 위기도 있었다. 통일을 위해 나아가던 진왕 영정(진시황)이 각국에서 모여든 인재들을 쫓아내는 '축객령'을 내린 것이다. 자국 출신만 등용시키겠다는 '순혈주의'였는데, 초나라 출신인 이사(李斯)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과거 사례를 열거하며 영정에게 능력이 있으면 출신지를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이를 받아들인 영정은 이사의 관직을 승진시켜 재등용했고, 이사 덕분에 중국 역사상 첫 황제에 오를 수 있었다.

촛불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만 4년이 되어 가는데 애초 약속했던 개혁 조치들은 별 진척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LH 사태로 불거진 투기 만연, 사교육 의존 심화 및 지방대학의 고사, 지방소멸 및 심각한 수준의 지역 간 불균형 등등. 이 같은 결과는 해당 분야의 인사 실패도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만 낙점하지 말고, 널리 진정한 인재를 찾아 최소한의 성과라도 남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